"폐암 신약 연내 美 임상 2상"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

기존 약 내성 생긴 환자 타깃
해외 제약사와 기술 이전 논의

에이비온이 개발 중인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ABN401)에 대한 임상 2상이 올해 말께 미국에서 시작된다. 올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2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지 약 1년 만이다.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사진)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한국과 호주에서 시행한 임상 1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선 1상을 건너뛰고 곧바로 2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해외 제약사와 기술이전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BN401은 기존 폐암 치료제의 맹점으로 꼽히는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약 후보물질이다. 모든 암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은 암세포 크기에 따라 소(小)세포폐암과 비소(非小)세포폐암으로 나뉜다. 폐암 환자의 80%는 비소세포폐암을 앓는다. 매년 이 암에 걸린 환자가 170만 명씩 나오고 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이레사, 스위스 로슈의 타쎄바 등 여러 치료제가 나왔지만, 이들 약을 쓴 환자의 상당수는 내성으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암세포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는 탓이다.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C-Met)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예다.

ABN401은 C-Met가 활성화되는 걸 막는 식으로 폐암을 치료한다.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기는 걸 막아줄 뿐 아니라 이 물질 자체도 폐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호주·한국 임상 1상에선 ABN401을 단독 사용한 환자 10명 중 2명에게서 종양 크기가 50% 이상 줄어드는 '부분관해'가 관찰됐다. 임상 1상의 본래 목적인 안전성도 검증됐다. 투약 용량을 늘려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신 대표는 설명했다.

에이비온은 인터페론베타 기반 신약을 폐암 치료제 다음 타자로 꼽았다. 인터페론베타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지만 제조 과정에서 잘 엉겨붙는 탓에 대량생산이 쉽지 않았다. 에이비온은 이 물질에 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엉겨붙는 정도를 낮췄다. 그 덕분에 기존 방식 대비 생산수율이 80배 이상 높아졌다.

에이비온은 이 물질을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 개발해 내년 상반기 유럽에서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상용 제품 생산을 담당한다. 신 대표는 "인터페론베타에 암 조직을 겨냥하는 항체를 달아 여러 암에 쓸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반도체 기판 호황 … 심텍·대덕전자 증설 붐

산업리포트

인쇄회로기판(PCB) 전문기업 심텍의 충북 청주 공장에선 증설이 한창이다. 지난 2월 이후 8개월째 반도체용 PCB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제조라인 구축에 공들이고 있다. 지난달 추가 투자가 결정되면서 증설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심텍 관계자는 "물량이 계속 확대돼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증설이 끝나면 생산능력이 연초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판업계가 초호황을 맞고 있다. 연간 1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증설을 위한 시설투자를 1년에 두 차례 해야 할 정도다. 수주 속도가 제품 출하 속도보다 빨라 제품을 출하해도 수주 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텍과 함께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은 경기 안산의 대덕전자다. 이 회사 역시 지난해 7월 900억원, 올해 3월 700억원 등 최근 1년여간 두 차례에 걸쳐 반도체 기판 사업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는 "2024년까지 신규 제품(반도체 기판)으로만 연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도체 기판업계의 호황은 5세대(5G) 이동통신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효과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의 5G 전환으로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향상되면서 반도체 기판의 크기가 커졌다. 기판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 데 비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병목현상이 생겼다는 진단이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수요는 늘어났는데 기판의 대면적화와 층수 확대 등 고집적화에 따라 기판 크기가 커지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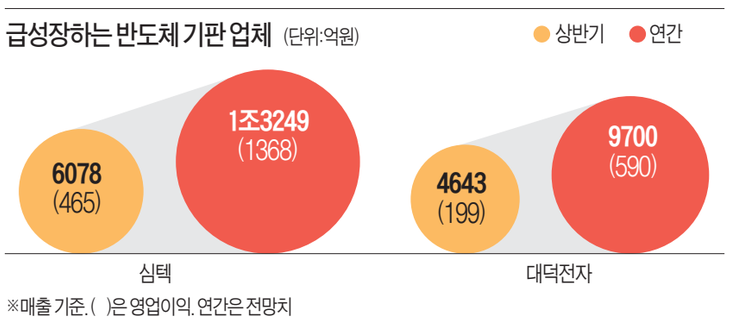
세계 3대 반도체 기판 업체인 대만 유니마이크론의 화재도 기판 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잇따라 공장에서 불이 난 여파로 공장의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텍이 AP용으로 많이 쓰이는 반도체 기판(FC CSP) 생산 확대에 팔을 걷은 이유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실적 전망치도 상향됐다. 올해 매출 전망치는 당초 1조2205억원에서 1조3249억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1152억원에서 1368억원으로 조정됐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대덕전자는 비대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PC의 중앙처리장치(CPU)용 반도체 기판(FC BGA)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PC의 신규 및 교체 수요가 급증했다. 세계 PC 시장은 2016~2019년 연평균 1%대 성장에 머물렀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년 대비 12.9% 성장했고 올해는 18.3% 신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덕전자가 새로 투자한 반도체 기판은 PC에 이어 서버, 게임콘솔,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덕분에 올해 매출 9700억원, 영업이익 590억원을 올릴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반도체 기판 가격도 오름세다.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반도체 기판 가격이 평균 10% 넘게 인상됐다.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년 대비로는 20~30% 올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주문 후 제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전 4주에서 24주 이상으로 늘어났다. 반도체 기판 초호황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준의 정보기술(IT) 업황이 유지되면 내년에도 반도체 기판 품귀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출하 늘려도 주문량 못 따라가
대만업체 화재로 반사이익

심텍,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
대덕전자도 '비대면 특수'
PCB 가격 올들어 30% 올라

수수료 혜택은 기본입니다.
IRP는 지속적인 수익률관리가 중요합니다.

CYBOS Touch

크레온

IRP 장기수익률
1위 대신증권!

※ 2020년말 기준 IRP 연평균 수익률 3년(3.58%), 5년(3.24%), 7년(2.98%)
증권업계 1위(출처: 금융투자협회 비교공시)

* 적립금 운용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IRP계좌 기준,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단,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대신증권 IRP 혜택
1. 비대면 크레온 IRP계좌개설시 관리수수료 면제
2. 모든 IRP고객은 펀드투자시 관리수수료 면제
3. 공모주청약 한도 2배 제공 – 전월 말 잔고 4백만원 이상
4. 다양한 유형의 연금수령 방식 선택 가능 – 기간선택형, 한도수령형, 금액선택형

ELB
RP
ETF
예금
펀드
(TDF, 리츠펀드, 부동산펀드, 자산배분형펀드 등)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C/IRP의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수수료: 운용관리수수료 적립금 1.5억원 이하 연0.15%, 1.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연0.1%, 10억원초과 연0.05%/자산관리수수료 적립금 10억원이하 연0.1%, 10억원초과 연0.05%입니다(제차적용, 크레온IRP는 수수료 무료) *I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B는 발행사(AA-, 2021.06.14,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0,- 순으로 구분). *이 안내문은 창작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창작의 권유는 (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 충족시 지급될 수 있는 최대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시 최대손실율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443호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네이버가 콕 찍은 아워박스 물류 서비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보관부터 환불까지 일괄 대행
이커머스에 물류센터 지어줘
콜드체인 갖춘 '예비 유니콘'

유통업계에선 '풀필먼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물류업체가 판매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물건의 배송 및 보관, 포장, 재고 관리, 교환·환불 등 '일괄 대행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의 전문 용어다.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시간이 당일배송 등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어 고용량·고효율 물류 처리를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아워박스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에 이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보관부터 사후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해준다. 고객사는 창고 임대료, 관리비, 포장비 등을 일괄해 대행 서비스를 받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아워박스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물류센터만 평택·동탄·군포 등 다섯 곳에 이른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사진)는 "유한킴벌리 오뚜기 등 중견기업을 상대로 e커머스 물류센터를 구축해주고 대행 운영할 능력도 갖췄다"며 "창고 운영 등 입찰에서 대기업 계열 유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벤처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회사의 풀필먼트 및 창고 운영 대행 등 서비스를 통해 664만 건의 물류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력 우위에서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주문 관리 시스템(OMS), 창고 관리 시스템(WMS) 등을 포괄하는 통합 물류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OMS는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현황, 결제 확인, 배송, 취소, 반품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WMS는 입고, 적치, 재고, 출고 등 물류센터 내 프로세스를 통합한다. 박 대표는 "냉장·냉동제품 배송에 특화된 콜드체인 센터 구축에 강점이 있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된 데 이어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투자금도 몰리고 있다. 지난해 SV인베스트먼트, 네이버, 한라홀딩스, 에이벤처스,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네이버는 투자와 함께 자체 쇼핑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아워박스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리즈B로 200억원대 투자가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창업 전 약 30년간 물류·공급망 관리(SCM) 담당 실무 및 임원으로 일한 유통 전문가다. 디아지오 구매물류 담당 임원, AB인베브 아시아태평양 본부 SCM담당 부사장을 거쳐 2017년 아워박스를 창업했다. 김동현 기자

한샘, 가을 가구 신제품 10종 내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2021년 하반기 가을·겨울 시즌 인테리어 가구 신제품 10여 종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 내 생활이 늘면서 확산한 '레이어드 홈' 소비 동향을 반영한 게 특징이다. 레이어드 홈이란 집의 기능이 주거를 비롯해 업무 및 여가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침실용 신제품 '유로 부티크'는 부피감 있는 세로 형태의 쿠션 디자인이 적용된 호텔형 침대(사진)다. 침대 양쪽에 연결하는 조명 패널과 함께 고급스러운 호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색상은 합성가죽을 사용해 관리가 편리한 '크림 화이트'와 발수 기능이 장점인 스웨이드 질감의 직물을 적용한 '그레이'로 구성했다.

거실용 신제품 소파 '바흐 플루드'와 '유로 포네'는 함께 출시된 소파 테이블, 스툴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이다. 유로 포네는 충진재로 오리털을 사용해 편안한 착석감을 선사한다. 사선 모양의 다릿발이 특징인 온라인 전용 식탁 신제품 '도노 어반 세라믹'과 한샘 대표 자녀 방 브랜드 샘키즈의 신제품 '샘키즈 마이룸' 컬렉션 7종도 이번에 출시할 예정이다.

김윤희 한샘 디자인실 상무는 "2021년 하반기 한샘의 신제품 가구는 집 안의 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트렌드에 맞춰 여러 기능과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다가오는 하반기 신혼, 이사 시즌에 한샘 신제품 가구로 새로운 홈 스타일링을 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KCC, 열전도 6배 높인 세라믹 기판 개발

KCC는 열전도도를 기존 제품 대비 여섯 배 이상 높인 세라믹 기판 'H-AlN DCB(고강도 질화알루미늄 직접 결합 구리)'를 개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세라믹 기판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알루미나 대신 질화알루미늄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 특징이다. 고전력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의 효율성과 수명이 크게 개선됐다.

KCC는 약 4년에 걸친 독자적인 연구개발 끝에 H-AlN DCB를 완성했다. 최적의 배합비를 찾는 데 특히 공들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라믹 기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추가하면 열전도도가 떨어지고, 열전도도를 높이면 제품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KCC는 H-AlN DCB를 자동차, 정보기술(IT)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등 고성능 전기전자 부품이 필요한 국내외 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